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

-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Institution for Family-Friendly Community Initiated by Local People
- The Case Study of Livable Community Making Projects -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Cha, Sung-L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Locals' initiating the community making projects is considered as a good approach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sustainability and government's budget. But there are not the local institutions' support, while local people alone may face difficulties in starting and managing the projects.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s of the institutions for starting and manag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ies. For this purpose, 18 secondary source cases from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projects were analyzed. An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ocal) institutions need to gain credibility from the locals before start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project. In the motivation steps, the institution performs the role of a proposer, a survey researcher, an opinion gatherer and mediator. In the systematization steps, the institution needs to perform as a mentor, a developer of human and non-human resources, a conflict mediator, an education practitioner, an instructor, a networker, and an administrative staff. In the execution steps, the institution needs to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 (slcha@dju.kr)

perform as a cultural program planner, a public relations personnel, and an assessor.

In conclusion, the institution needs to train community coordinator and develop programs to educate local residents for the effective family-friendly community projects.

Key Words : 주민주도(Initiative of Local People), 가족친화마을(Family-Friendly Community), 기관(Institution), 살기좋은마을(Livable Community)

I. 서론

2008년 제정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 법은 우리 사회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의 필요성이 커진데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과 가정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할 사회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가족단위 내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양육과 부양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단위 내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요구가 가족친화적인 문화,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자녀양육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8년 10개 지역 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공동육아망’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 2009년도에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족품앗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공통사업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가족품앗이는 궁극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0년 가족품앗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가 소개(조성은, 2010)되었으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센터 담당자 개인적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실정이며, 담당자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업 진행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의 모태가 되

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사례에서는 소수의 지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거나 단기적, 일회적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위해 자율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적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방식은 한정된 복지예산규모, 지역사회복지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제약은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환경과 관련된 요구는 행정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사업참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계속 이끌어 갈 리더 및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등의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밖에도 마을만들기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자원의 연계, 행정과 주민, 주민 대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 해결,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꾸준한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업 경험과 정보, 네트워킹 능력 등이 부족한 주민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 개시 및 진행을 촉진, 지속시킬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필요하다. 광주 북구를 필두로 안산시,

강릉시 등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지금껏 주민 외부조직인 민간단체가 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치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해왔다.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현장 활동가들이 지역주민들과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추진과정(류승한, 2007: 63-64)을 여러 사례(최봉익, 2001; 유홍번, 2003; 박종숙, 2001 a, b, c, e; 김기원, 2001; 김종경, 2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친화마을을 포함한 마을만들기에 있어 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마을만들기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차성란, 2010; 김선기와 이소영, 2007; 행정자치부, 2006; 2007; 홍승아 외, 2007), 주민참여 또는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신중진과 신효진, 2008; 구자인, 2007; 신효진, 2006),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김선직과 김동윤, 2009) 등이 있다.

마을만들기 주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전문가의 역할을 다룬 류승한(2007)의 연구, 마을만들기 실행주체별 전략을 다룬 도선봉과 신창훈(2009)의 연구, 그리고 신중진과 송승현(2010)의 연구는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추진주체의 변화, 세부사업에서 주체간 관계구조, 연계사업에서의 주체간 관계 등, 변화와 관계의 두 관점에서 마을만들기를 분석하였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방법론을 다룬 연구(조연경, 김정민과 우신구, 2009),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연구(장준호와 윤영모, 2001) 등이 있으며, 마을만들기에서 시민단체

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북촌사례를 다룬 이소영(2006)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소영(2006)의 연구는 시민단체가 북촌지역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있어 성과가 보고된 사례를 분석하여, 가족친화마을을 주민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가족품앗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마을만들기의 경험이 많지 않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마을만들기 경험은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할 때, 각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목표화 함으로써 사업의 수월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친화마을만들기

1) 가족친화마을의 개념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함께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법에서 제시된 용어이다(법제처 홈페이지). 즉 이미 가족친화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장 사례들이 있지만,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만들어낸 용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시도하려는 가족친화마을은 육아 및 노인 돌봄, 보행이동, 공동체 생활 등의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여성경제 활동참여 등, 경쟁력있는 근로환경,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을 제공하는 즐거운 여가환경이 갖추어진 마을로 개념화하였다(행정자치부, 2006).

이에 비해 이송지 외(2009)는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연구에서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라 정의하여, 양육 및 거주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홍승아 등(2007)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가족의 책임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의 수행과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고 있어 가족돌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정체계 운영 전체를 지역사회 내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성란(2010: 3)은 통합, 공동체성, 살림을 가족친화마을의 이념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을로서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며, 좀 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마을’이라 정의하였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생활환경으로서의 ‘풍요로운 물리적 공간환경,’ 그리고 그러한 기초 위에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의 지역사회 내 공유’라는 두 개념이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가족친화마을은 살고싶은마을만들기의 9개 유형 중 하나인 가족형으로 개발된 모형이다(행정자치부, 2006). 마을만들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마을단위의 시설정비,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공동체 운동이다(류승환, 2007: 59). 전자와 관련하여 田村明(1987)은 마을만들기를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

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이라고 규정(심재봉, 2006: 24에서 재인용)하였다. 도선봉 외(2009: 68)는 마을만들기를 지역사회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민으로 거듭나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 하여 공동체 운동의 관점을 부가하였다. 한편 김영 외(2008: 91)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접근은 이상의 두 관점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한 지역에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함께 적용됨으로써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 공간, 관계, 시간의 차원을 구조로 하여 삶터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를 해 나가는 일련의 연속적 작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차성란, 2010: 5). 일자리 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가꾸기, 교육, 건강, 여가, 복지 등의 가정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삶터만들기, 공간적 요소를 배경으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 주민과 공간 환경 및 시설 등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만들기,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해 내는 사람만들기로 설명된다. 즉 마을만들기는 공동체만들기,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는 거주환경으로서의 삶터 위에 마을만들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발굴, 육성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체계 만들어가기'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서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은 가족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기본적 특성 때문이다. 가족친화마을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돌봄의 공유, 가족원을 위한 욕구충

족의 지역사회 공유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교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살기좋은마을과 가족친화마을은 둘 모두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적 특징에 있어 전자는 물리적 환경개선, 경제적 환경개선이, 후자는 네트워킹 구조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마을만들기가 어떤 단계와 활동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여러 연구자들이 각기 다양한 단계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표준화된 또는 적합한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명규(2006), 김선기 외(2007)는 5개 단계, 행정자치부(2007),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7단계 모델을 제시(<표 1>)하였으나 단계 또는 활동 내용의 구분 기준, 범위, 접근시각 등이 다양하여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경우, 차성란(2010)은 동기화, 체계화, 참여와 실천의 3단계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필요한 활동들을 제시하였다(<표 2>). 동기화는 곧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주민과 지역의 특성 파악하기, 마을 현안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 세부적인 실행 목표수립하기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 체계화는 마을만들기에 동기화된 주민들이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갈 인력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 만들기, 민관네트워크 형성하기, 리더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자문연계,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여와 실천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각 단계별 활동들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이 지원해야 할 역할을 탐색하는 기준으로

(표 1) 마을만들기 단계 및 활동

연구자	마을만들기 단계/활동
김선기·이소영(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민합의를 통한 마을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프로젝트 확정 - 실행 및 피드백의 단계
행정자치부(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그리기 - 보물찾기 - 조직화 및 합의 - 민주적 합의체 및 전략수립 - 실천 - 나눔 - 평가 및 환류
이송지 외(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 중 해결과제 제안그룹 등장 - 계획 및 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사업의 계획수립 - 사업시행 및 보고 - 지역 기관들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만들기 - 마을활동가 지원구조 만들기 - 마을만들기 비전과 중장기 구상 - 제도화
이명규(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발굴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마을 현황과 비전 - 친환경적 마을기능 개발을 위한 자문 - 시스템 개발-주민자치교육, 공동체교육, 주민과 행정의 중재

출처: 차성란(2010; 7)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를 위한 단계 및 활동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비전 만들기 - 주민과 지역의 특성 파악하기 - 마을 현안 문제의 합의 - 세부 실행 목표 수립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 및 조직화 - 합의체 만들기 - 민관네트워크 만들기 - 주민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 - 전문가 자문 - 행정지원
참여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 실행 - 피드백

출처: 차성란(2010: 7)

2. 마을만들기와 기관의 역할

1) 마을만들기의 주체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위계적, 수직적, 지시적인 방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효율성 및 성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이제 민, 관, NGO, 주민 모두가 인식하는 바이다. 주민에 의한 마을만들기는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마을만들기의 유형을 추진 주체별로 보면 주민주도, 시민단체

주도, 행정기관주도, 전문가 주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주민주도는 주민참여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Cunningham(1972)은 ‘참여는 기존의 의사결정자인 행정기관에 대해 주민이 직접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과정으로 개념화했으며, Huntington(1976)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라 정의하였다(심재봉, 2006: 13에서 재인용). 참여의 개념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식을 가지고 주체적 활동으로 참여한다는 개념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심재봉(2006: 14)은 ‘일반인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과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수동적 참여의 개념을 능동적 참여의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주민주도란 정부주도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역개발사업의 발의에서부터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을 거쳐 시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기 외, 2007: 5)

주민참여는 의식 행태적, 제도적 두 측면에서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정서적 일체감에 근거한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식, 시민

〈표 3〉 추진 주체별 마을만들기 유형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및 사례
추진주체	주민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단지내 각종 문화공간조성 - 부평시장내 문화의 거리
	시민단체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번초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녹색아파트만들기, 녹색가게
	행정기관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제안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경우
	전문가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형식

출처: 심재봉(2006) 29쪽을 참고로 재작성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에 의한 생활 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적 태도를 요구한다. 이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고,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심재봉, 2006: 17).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행하는 각종 노력과 운동(조연경 외, 2009: 206)이 주민참여라면, 주민주도는 참여자의 입장보다 좀 더 적극적인 주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영 외(2008: 92)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주도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요소로서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의 네 요소를 들었다. 참여성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상호성, 형평성으로 구성되며, 자율성은 독립성, 신뢰성,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성은 리더십, 역할, 규범의 작용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는 지속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체계로서 기능해야 하며, 해당 조직은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민들은 공유공간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의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며, 주민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조연경, 2009: 206).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됨으로써 변화된 가축친화마을로서의 기능체계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주민을 포함하여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이 자조(self-help)의 기초 위에(최봉익, 2001) 사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민

자치적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까지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초기에는 각 추진주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정도가 다르고 각자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마을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신중진 외, 2010: 305).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초기에는 서로 입장과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정기적인 만남과 공통의 목표, 서로의 역할조정을 통해 점차 각자의 생각을 조정해 나간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주체 및 인적 협력기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축, 마을미래상 발표회 등 주민과 추진주체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점차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신중진 외, 2010: 302).

이러한 주민주도적인 사업방식은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며, 주체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나 계획전문가들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사업 절차의 지연, 진행의 완만함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류승한, 2007: 61).

하지만 마을만들기가 주민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목표에 이른 후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항상 진행형이므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삶터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키는 이들이 주민이므로 자신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다. 주민은 지역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자로서 지역의 문제, 지역에 대한 요구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다. 행정에서의 지역요구 파악은 외부인의 관점에서 욕구조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 요구 파악에 비해 상대적 효율성이 낮다.

셋째,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낸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이 같은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정생활은 다양한 가족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에 이를 수 있다.

2) 마을만들기와 기관의 역할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주민, 시민단체, 행정, 전문가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조직은 민간조직의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구성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이에 두고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모두 지닌 기관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면,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구나 조직(국립국어원, 1999)’이라는 의미의 기관에 이 두 유형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은 주민교육, 중재, 행정차원에서의 정보제공 등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주민주도적인 방식의 마을만들기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행정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마을만들기 조직 리더의 임기중단으로 사업 진행도 중단 또는 퇴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영 외, 2008: 105-106). 이때 기관은 또 다른 리더가 발굴되기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거나 리더 발굴 및 주민교육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는 삶터, 쉼터, 일터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두를 개별 전문가가 전담하기 어렵다. 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지식 제공, 절차적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실제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실천적 경험을 요구하므로 특정 영역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적절히 연계하는 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류승한, 2007: 61). 셋째, 지역의 시민단체가 마을만들기의 근본적인 가치와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가 가시적, 물리적, 실적 중심의 사업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성, 가치, 비전 등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후 주민협의체는 마을만들기를 주도하며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기관은 이를 위해 주민들과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지원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신종진 외, 2010: 305).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관의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자체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행정적 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직접 장비나 인원을 동원해준다거나 하는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윤택유의 역할 또는 장애물 제거 작업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원이 아닌 주도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안산시 마을만들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체운동

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시화추의 구성, 회의소집, 운영 등을 안산시가 주도하면서 관 주도적 성격을 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시화추 구성원들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활동방향 및 사업, 운영, 의사결정구조 등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전하고 행정은 지원 역할만 한다는 단서(유홍번, 2003) 하에 시화추의 활동을 재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기관의 역할은 참여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로 소극적 관심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다음 단계로는 주민들이 정보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계획과정 전반에 자문, 지원하는 역할로 점차 강화될 수 있다(신중진 외, 2010: 302).

마을만들기의 사업 진행에 따른 역할을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초기에는 행정과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신중진 외, 2010: 306). 실천단계에서 기관은 주민의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 선진사례 답사 등의 활동을 통해 점차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성장하며 세부사업을 주관하거나 전문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주체의 관계를 만들어간다(신중진 외, 2010: 302).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변화된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의 유지와 관리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 주체로 변화한다. 대구 YMCA는 1998년부터 시작한 삼덕동 마을만들기의 실질적인 주체로 사업초기에는 계획을 구상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주체였다. 그러나 추진협회를 조직하고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평가단계에 이르면 주민의 활동을 지원, 교육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신중진 외,

2010: 302).

이명규(2006)는 마을만들기에서 기관의 역할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첫째, 동네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젊고 유능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의 발굴. 둘째, 지속적인 동네발전과 체의발견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셋째, 동네의 개성을 발휘하는 동네 캐릭터 개발을 위한 마을 현황과 비전의 이슈 제공. 넷째, 인간과 자연이 상부상조하는 친환경적 마을의 기능 개발을 위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컨설팅 및 어드바이저 역할 담당. 다섯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교육, 공동체교육, 주민과 행정의 중재자 역할 담당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활동내용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개발과 마을의 비전찾기 등은 기관의 교육기능과 관련된다. 기관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리더 또는 활동가를 발굴하여 사업의 주도적 진행에 대한 교육, 마을의 비전찾기를 위한 워크샵, 선진사례답사, 다른 마을만들기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광주 YMCA 마을만들기 운동 담당자는 이론적 역할이 아닌 실천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간단체는 지속적 중개활동자로서, 그리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및 어드바이저 역할의 하나로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도 기관의 주요활동이다.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주민이 관련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의 담당부서가 다르며(신중진 외, 2010: 305), 공공업무 경험이 좀 더 많은 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정

보를 주민에게 연계시킴으로써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중재는 마을만들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 역할에 포함된다. 시민단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공동의 가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에 직면할 때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게 된다(황희연, 2007: 49).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지역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때문에 기관은 기존사례에서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사이의 다양한 갈등 유형을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류승한, 2007: 64-65)함으로써 와해된 지역공동체를 재형성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속시켜 나가는 역할(이소영, 2006: 126)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에서 기관이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이상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관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2차적 문헌자료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족친화마을의 경우, 2007년 강원도 영월, 충남 논산, 전남 장흥이 가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되고(이송지 외, 2009: 16) 있

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여성부가 2년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여수, 군산, 시흥에서 시행한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윤경화, 2009). 사례분석을 위해 차성란(2010)의 연구를 참고로 ‘동기화’, ‘체계화’, ‘참여 및 실천’의 마을만들기 3단계 모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차적으로 문헌자료 중 단계별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2차적으로 동일한 활동 범주를 구분하는 유목화를 하였다. 동일 범주에 포함된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를 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국토’에 실린 사례 총 44건 중 주민주도적인 사례,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 37사례를 선별하였다. 그 중 유의미한 사례를 제공한 사례는 서울지역 강북구 미아동 사례 등 6사례, 경기도 지역 고양시를 비롯한 6사례, 인천시 2사례, 강원을 비롯하여 경남, 전남, 경북, 대전 각 1사례씩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총 18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기관의 역할을 분석함에 있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경험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IV.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1. 조사대상 사례

분석대상이 된 총 18사례 중 민간단체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를 비롯하여 13사례의 14개 기관, 주민조직 3사례, 전문가 1사례, 개인 1사례였다(<표 4>).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에서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주민

〈표 4〉 조사대상 지역 및 관련 기관

지역	대표 사업명	참여 및 지원기관 (주체 유형)	출처	
서울	강북구	가고 싶은 놀이터만들기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기)	김진숙(2002)
	관악구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	관악주민연대 (기)	강인남(2004)
	광진구	아름다운 노유거리가꾸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기)	박종숙(2001e)
	동작구	양지공원 조성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전)	박종숙(2001c)
	은평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도시연대(기)	김연희(2002)
	중랑천	중랑천 살리기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주)	김태선(2003)
경기	일산시	우리가 꿈꾸는 녹색마을 만들기	고양녹색소비자연대(기)	김미영(2004)
	광명시	더불어사는 자치마을만들기	광명 YMCA(기)	김기원(2001)
	부천시	차없는 거리조성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기) 푸른부천 21실천협의회(기)	강지원(2004)
	안산시	시민단체, 행정, 주민에 의한 마을만들기	안산 YMCA풀뿌리환경센터(기)	유홍번(2003)
	의정부시	주민참여를 통한 희망마을 만들기	장암종합사회복지관(기)	배승룡(2003)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주)	박종숙(2001d)
	서구	문화시설 스스로 만들기	입주자 대표회의(주)	박종숙(2001b)
강원	춘천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춘 마을만들기	춘천 YMCA(기)	김종경(2002)
경남	창원시	하천살리기	경남정보사회연구소(기)	문귀남(2001)
전남	광주시	좋은동네만들기	광주 YMCA(기)	최봉익(2001)
경북	대구시	골목공동체만들기	대구 YMCA 시민사업국장(개)	박종숙(2001a)
대전	대전시	엘리베이터나눔이	대전 YWCA(기)	정용옥(2003)

주: 개(개인), 기(기관), 전(전문가), 주(주민조직)

조직, 전문가, 개인이 사업을 이끌어 간 사례에서 기관이 참고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사례에 포함시켰다.

2. 마을만들기 동기화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간단체가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면, 이것이 기관 대 주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 서울 미아동의 ‘가고 싶은 놀이터만

들기’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인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가 이미 사업시작 3년 전부터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인 마을축제를 벌여왔다. 이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자원봉사로 연결되고, 마을만들기의 초석이 되는 주민모임을 결성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시민단체(열린사회 북부시민회)는 이미 사업시작 3년 전부터 풍물패를 중심으로 ‘우리 절기 살리기’운동을 하며 동네 놀이터에서 단오잔치와 백중잔치를 벌여왔다. 2000년부터는 정기적인 축제를 포함하여 [중략] 놀이터 한켠 텃밭에 야생화 심기, 인형극 관람, 먹거리 나눔의 활동을 하였다.

(표 5) 마을만들기 동기화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단계	목표	역할	활동
동기화	사업 기반 구축	협조자	-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관계형성
	동기 유발	사업 제안자	- 직접 사업 참여
		자극 제공자	1차적 자극 - 프로그램 - 물리적 시설 설치 2차적 자극 - 교육 - 조직화
	마을 실태 파악	조사·분석자	- 설문조사
	마을 문제 합의	의견 수합자	- 마을지도그리기 - 디자인게임 - 의견합설치 - 축계형식을 빈 설치 프로그램 - 욕구조사 - 설문조사 지원
		의견 조정자	- 토론회, 간담회 주최, 지원 - 공청회 주최, 지원 - 설문조사분석 및 정리
		의사결정 지원자	- 회의 진행, 지원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늘이터만들기 운동에 활력이 붙었다. [중략] 잔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몇 명의 주부들이 북부시민회를 찾아와 “(북부시민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부침개 정도는 자원봉사 할게요”라고 자청했다. 이를 계기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주민모임 ‘토박이’도 만들어졌다(성북구).

2) 자발성에 의한 사업시작

부천시 고강동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자가 지역주민도, 지역의 활동단체도 아닌 시 집행부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사무장이었다. 사무장은 거리조성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했으면 하는 의견과 함께 도시연대와 푸른부천21에 협조 요청을 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로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 역시 대구 YMCA의 시민사무국장이 개인 차원에서 자신이 세든 집을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담을 허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광명시 하안동의 마을만들기의 경우, 광명 YMCA에서 활동하던 주부들이 마을별 베품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고무되어, 광명 YMCA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마을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부천시 고강동, 대구 삼덕동, 광명시 하안동의 3 사례는 사업제안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높은 시민의식이 바탕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관이 마을만들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동기 유발을 위한 자극 제공

가족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민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마을생활에 가시적인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특히 생계유지로 지역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임대아파트 거주자인 관악구의 경우, 관악주민연대에서 거주지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다거나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로 교육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직접적인 이익이 되고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

는 활동으로 거주지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 일 [중략] 관악주민연대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로 교육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자녀의 교육문제는 계층과 관계없이 지역주민 대부분의 관심사로 보고 우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부방과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관악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여줌으로써 마을만들기에 대해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미 1999년 안산 YMCA 풀뿌리환경센터에서 개최한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을 받은 주부들이 생태안내자모임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들이 각종 환경교육과 환경보존운동을 확대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안산시)

지역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음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중랑천에서는 1999년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었다. 산란을 위해 중랑천을 거슬러 올라왔던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당한 것이다. 물고기 때죽음으로 인한 세인들의 관심이 사그라지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이라는 지역환경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서울 중랑천)

4) 마을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자

지역의 실정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부터, 지역경제 및 문화적, 생태적 환경 등이 매우 상이하다. 가족친화마을의 경

우 해당 지역이 어느 곳이든 가족돌봄과 가족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공통적인 과제를 갖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된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과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등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관이 지원해야 할 주요 업무가 된다.

또한 춘천 YMCA는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마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우두지역 마을학교를 실시하였다(춘천시).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의 경우 도시연대는 주민들과 함께 조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조사활동 또는 민원제기에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을 도와 [중략]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은평구)

5)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자

가족돌봄의 사회적 해결 과제 이외에 마을만들기는 삶터로서 물리적 공간 개선이 요구된다. 이 사업이 주민주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일차적 관심과 문제를 파악하여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추진력에 매우 중요하다. 기관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게임, 지도그리기, 워킹, 의견함 설치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북구, 동작구 사례 외에도 고양시 녹색소비자연대의 마을의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게임,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생활의견함 운동, 부천시 고강동의 축제형식을 빌어 아이들이 희망하는 테마거리조성하기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주민과의 합의형성과정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걸리버 맵’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워크숍 진행 [중략]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중요한 정보를 써넣는 하나의 이벤트로... 주민들은 거인 걸리버가 된 기분으로 마을 전체를 살펴보고 지도를 만든다. [중략]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을의 새로운 매력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 이것이 토대가 되어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 대한 꿈그리기, 미아 3동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성북구).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의 교수가 제안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공간디자인 실시 [중략] 워크숍, 인터뷰, 설문분석, 희망표현, 사진촬영, 시뮬레이션, 모형, 게임, 지도그리기, 카드게임, 대상지 걷기, 예산분배게임, 이용후 평가 등의 방법 이용... (동작구)

6) 마을문제합의를 위한 의견조정자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때, 사업의 시작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의 형식을 빌려 주민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관은 홍보를 통해 많은 관련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과 정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 고강본동 테마거리 조성에서 추진할 테마조차 정해지지 않아 지역주민, 동사무소, 민간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거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원조성에 찬성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주도적인 사업추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테마에 대한 방향이 잡혀졌고,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라는 주제를 결정하였다.(부천시)

안전한 통학로라는 주제가 정해지면서 [중략] 1차 그림그리기 욕구조사, 2차 글로 적는 개방형

의 욕구조사를 거치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은평구)

7)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의 진행자 또는 지원자
회의는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 조정, 통합하는 것이다. 회의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일정한 원칙과 규칙,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기관은 회의의 진행에 대해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업진행과정에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당동 양지공원 조성의 경우 [중략] 마을만들기 경험이 전무한 주민들에게 알아서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방치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동작구)

2. 마을만들기 체계화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1) 주민주도를 이끌어 갈 주제

마을만들기의 시작은 개인, 전문가, 기관 어느 것이든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들 스스로의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마을의 비전을 향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토론과 의결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1차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의사결정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관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합의체의 필요성과 해야 할 역할을 교육하고, 실제 합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 경우 지역 복지회관에서 활동하는 독서 어머니모임, 들꽃어머니 모임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주민추

〈표 6〉 마을만들기 체계화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단계	목표	역할	활동
체계화	합의체만들기	안내자	- 합의체 필요성 및 역할 알리기
		프로그램운영자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임계기 제공
		행정지원자	- 합의체구성을 위한 절차 지원
	민관네트워크	인적, 물적자원개발자	- 장비동원 - 인원동원, 공공요원연계 - 예산확보
		중재자	- 갈등 조정 - 중립적 위치에서의 정보제공, 평가 - 대안 제시 - 행정규제 완화 시도
		조언자(안내자)	- 절차상의 정보 제공 - 행정규제, 법, 조례 등 안내 - 조직 운영에서의 전문적 경험 제공
		견제자	- 행정 또는 주민활동에 대한 견제
	주민 및 리더양성	인력발굴	- 다양한 프로그램 기회 제공 - 주도적 활동가 참여 권유
		교육사업담당자	- 교육생 모집 - 교과과정 개발 - 교육계획안 수립 - 교육진행
		교육강사	- 강의 - 워십진행
	전문가자문	네트워크	- 전문가 섭외 - 자문요청 -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와 주민사이의 연계
	행정지원	행정담당자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 문서작성지원 - 공간제공 - 소유장비대여

진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부천시)

관련된 상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동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유거리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견수합과 결정을 위한 공식 통로를 구축하였다. (광진구)

2) 지자체의 지원의 확보

공적인 예산지원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여성가족부의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기

관은 그동안의 축적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양, 연계 가능한 자원 등을 파악하여 인원과 장비,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직공원 내 놀이터에 놀이시설로 인한 기름덩어리가 땅속에 묻혀있어 [중략] 변화추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름덩어리 제거작업에 나서자 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시청의 공원녹지과에 알려 묘목과 장비 일체를 지원받았다.(광주시)

담을 허문 뒤 생기는 공간을 녹색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 중 일부를 시 임업연구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담장허물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대구시)

3) 조정 및 중재자

마을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그려 나갈 때, 중재하는 행정의 역할이나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은 사업의 진행속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케 한다. 기관은 주민, 행정, 전문가를 연결시키거나 기관이 직접 조정 및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부천 고강동의 경우, 테마거리 조성부지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토지활용의 효용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 때 동사무소에서 테마거리 조성으로 인해 차단되는 차량 통행을 이어줄 수 있는 우회도로 건설,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조건으로 중재한 결과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부천 고강동)

주민들은 아파트 뒤쪽 공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

정되어 있지만... 공원조성에 대한 열망을 인천시에 알려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인근 다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인천시 서구)

이해당사자간 조정 외에 행정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데 기관이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광진구청에서는 상가거리 조성에 필요한 행정상 진행절차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거나 주민요구에 대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주는 역할을 했다.(서울시 광진구)

4) 견제자

서울시 광진구 노유거리만들기 과정에서 도시연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행정, 전문가, 주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5) 인력개발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람만들기는 공동체 만들기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잠재능력을 지닌 활동가와 리더들을 잘 발굴해 내어 사업주체로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관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가를 발굴해 내기란 매우 어렵다. 기존의 기관의 회원, 비공식적인 모임, 교육수강자, 아파트 관리조직,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발굴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광명 YMCA는 이미 지역 거주자들이 광명 YMCA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관은 자치부녀회를 활동의 주축으로 삼았다.(광명시).

6) 활동가 및 리더 교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진행

기관은 발굴된 잠재적 활동가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의식, 정보와 기술, 실천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진행자, 그리고 직접 강의를 하거나 워킹을 진행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프로그램 명칭으로 '마을학교'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는데,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이 우선이라 여겨 변화추진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광주시 사직동)

광주 양림동 '이야기가 있는 골목 만들기, 자치가 있는 골목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대학프로그램 실시 [중략] 매주 2일간 3주에 걸쳐 실시... (광주시 양림동).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이해, 마을 실태조사 보고 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한 지도력 훈련이 이어졌다.(춘천시)

7) 전문가의 자문 연계

전문가 자문은 마을의 거주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도시설계, 토목, 교통, 생태 등의 부문에서 자주 요구된다. 기관의 기존 네트워크 또는 새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필요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답을 허문 뒤 생기는 공간을 녹색으로 만드는

데 조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조경을 지원(대구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중략] 차량통제, 일방통행, 차보도병합형 등의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거리조성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통행방향의 장단점을 거리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설명해주었다.(광진구)

중랑천 살리기의 경우에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중랑천의 옛모습을 알아보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수질정화에 좋은 수종 등을 선택하는 도움을 받았다.(중랑천)

고양시에서 옥상 생태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비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건물구조안전진단, 옥상녹화 설계 등의 작업은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고양시)

8) 자원봉사자 모집 및 인력관리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수급과 관리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해주거나, 주민조직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밖에도 기관이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그밖의 시설 및 장비 대여, 경험 부족으로 문서작성이 서툰 경우 직접 작성을 지원하는 등의 행정지원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양시 일산 3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는 [중략] 일명 후곡하늘동산을 만들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했고, 이에 고양녹소연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식물들의 생태를 관찰, 기록하기 위해... (고양시)

9) 주민주도적 특성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많은 마을만들기

사례들에서 활동가 및 리더양성을 함에 있어 이들이 주민주도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은 통칭 ‘마을학교’의 교육철학, 교과과정 구성, 교육방법 등을 통해 주민주도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의정부 장암동 YMCA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중략]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목표를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지속적인 활동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으로 삼았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와 자치를 이루어 내도록 촉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의정부시)

안산의 마을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앞장 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준비에서부터 행사진행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안산시)

관악구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관악 주민연대는 시작단계에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목

〈표 7〉 마을만들기 참여·실천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단계	목표	역할	활동
참여와 실천	실행	참여기회제공	- 자연스런 참여기회로서의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획 컨설턴트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지속적인 자극 제공자	-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사업집행자	- 사업주도
		홍보	- 홍보활동
피드백	평가자	- 회의 - 워킹	

표로 확고히 설정하였다. (관악구)

광명시 마을만들기의 경우도 자치부녀회가 [중략] 완전한 자치를 이루기 위해 단지의 운영조직을 변화시키는 주민주도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 마을만들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단지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광명시).

3. 마을만들기 참여 및 실천 단계에서의 기관 역할

1) 참여기회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사업 초기에 마을의 비전에 대한 꿈을 갖고 참여한 주민들이 처음의 동기를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마을의 비전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중략]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자연스러운 참여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파트단지 나무생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마을의 장점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일산시).

2) 프로그램 기획 및 아이디어 제공자

기관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마을축제의 성공이유 중 하나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자

치위원이거나 동사무소가 어려워하는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공신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안산시)

3) 계속되는 자극을 제공하는 촉진자

많은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정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계속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만들기가 성숙되어 나간다. 마을만들기는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주민들이 인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활동내용이 되는 것이다(김기원, 2001). 대구 삼덕동의 사무국장은 담장허물기가 주민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을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꾸러기 그림대회, 골목전시회, 골목 영화제, 인형극 상연, 녹색가게 등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대구시 전역으로 담장허물기를 전파시키는 힘을 키워냈다. 광명 YMCA의 경우도 마을도서관, 아파트 단지 자치 신문제작, 마을잔치로서의 산울림 축제, 주민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자원학교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있다.

담허물기로 만들어진 골목공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동네주민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이에 계속되는 사건을 제공함으로써 마을만들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중략] 골목 벽면을 이용한 영화제, 집안의 창들을 무대삼은 인형극 상연, 병뚜껑벽화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대구시)

2001년에는 나무심기 행사를 3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중랑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적어 나무에 거는 생명의 나무, 중랑천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중랑천)

4) 사업집행자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 또는 안산시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기관이 사업의 실행단위로 기능할 수도 있다.

시화추(시민화합추진위원회-관 주도 조직)는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역할만으로 제한하였다. 즉 경실련, YMCA, YWCA 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 협의하고 집행하는 실행단위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안산시).

5) 홍보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주민의 참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민리더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여, 일부 주민들의 참여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이들이 이사, 전업,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가 어려워지면 사업 전체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기관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전체의 보편적 관심과 활동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범 동마다 5명씩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마을학교 및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만들기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안산시).

6) 평가자

마을만들기 사업은 항상 ‘진행형’(강찬호, 2004)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참여로 사업이 시작되었다해도, 참여기회가 될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이 체계화되었다 해도 주민들간 정보, 서비스, 재화 등이 상호교류가

되어야 가족친화마을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완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마을의 물리적 여건과 공동체성이 계속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평가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주도에 의한 자체평가 외에 객관적인 기준과 입장에서 기관은 평가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IV. 결론

정부의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었다거나, 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예산사용,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히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인 경우라도 전문가, 행정, 기관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주민주도에 의한 공동체성 확보로, 모든 연령과 세대의 가족원들이 오래도록 거주하고 싶은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있어 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활동을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례 중 주민주도에 의한 또는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에서 고려할만한 18사례를 분석하여 마을만들기 동기화, 체계화, 참여 및 실천의 세 단계별로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주민과 기관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업이 개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협조자의 역할이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관계 형성의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

둘째, 마을만들기 동기화단계에서 기관은 사업제안자, 자극제공자, 조사분석자, 의견수렴자, 의견조정자 및 의사결정 지원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관에서 먼저 유관 사업을 실시해 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 사업제안자,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분석자, 그리고 마을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차례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자의 역할이 파악되었다. 자극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기관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민교육 및 주민조직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의견수렴자로서의 활동은 마을지도 그리기, 디자인 게임, 의견함 설치, 축제,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체계화단계에서의 기관의 역할은 합의 체조직을 위해 안내자, 행정지원자의 역할을, 민관네트워크를 위해 자원개발자, 중재자, 조연자, 견제자의 역할, 활동가 및 리더양성을 위해 인력발굴, 교육사업담당자, 교육강사의 역할을, 전문가자문연계를 위해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행정지원을 위해 행정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는 자원개발자의 경우, 장비나 인원동원, 예산확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재자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 제시, 행정규제 완화 시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육사업담당자로서는 일종의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교육계획안 수립 및 진행, 그리고 교육강사로서 직접 강의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가를 섭외, 자문요청을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담당자로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행정능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체계화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및 실천 단계에서 기관은 참여기회제공자, 문화기획컨설턴트, 자극제공자, 사업집행자, 홍보가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기획자 또는 컨설턴트로서 기관 담당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단계별 역할과 구체적 활동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괄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지리적 환경 및 주민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의 역할과 활동이 선별될 수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를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지역인 경우 단계별 역할과 활동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인력, 즉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업무능력과 적성을 지니고 있는 직원을 해당 사업에 배치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성과가 미흡한 지역인 경우라면, 담당자가 제시된 역할을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역할별로 제시된 활동들을 실제 사업에 적용시켜봄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은 지역주민과

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민 개개인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살기 좋은 가족친화마을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의 관심을 체계화시키는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사업개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5년 이후, 부모교육, 부부교육 프로그램,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상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고 보면,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마을만들기 동기화, 체계화, 참여 및 실천의 각 단계별 요구되는 역할과 활동이 다양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서작성, 홍보, 문화프로그램 기획, 진행 등의 행정능력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밖의 조사분석, 워킹 진행, 회의진행, 갈등조정 등의 전문적 능력 배양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주는 바, 첫 번째는 전문능력을 갖춘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이상에 언급된 내용들이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상에 언급된 전문능력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현재 광주 북구를 비롯하여, 안산시, 강릉시 등에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가족친화문화조성 확산을 주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이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어떻게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지, 또는 어떤 형태로 유대관계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마을만들기 지원을 담당했던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인남(2004). 희망을 나누며 하나되는 우리 동네 38: 서울시 관악구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 사례. 국토연구원. 국토 273, 119-123.
- 2) 강지원(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6: 안전한 거리조성, 주민모두 한마음-부천시 고강본동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국토연구원. 국토 273, 105-111.
- 3) 강찬호(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6: 광명시의 마을만들기는 ‘현재 진행형’. 국토연구원. 국토 269, 120-125.
- 4) 구자인(2007). 기획특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주도 상향식의 농촌 마을 만들기-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 도시와 빈곤 84, 55-68.
- 5) 김기원(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 6: 더불어사는 자치마을을 꿈꾸며-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국토연구원. 국토 241, 77-81.
- 6) 김미영(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3: 우리가 꿈꾸는 녹색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68, 124-127.
- 7) 김선기, 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 김선직, 김동윤(2009).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연구 6, 29-54.
- 9) 김연희(2002). 살기좋은 우리동네 16: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국토연구원. 국토 251, 102-107.
- 10) 김영, 이필용, 김남룡, 정규식(2008).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1(3). 87-108.
- 11) 김종경(2002). 살기좋은 우리동네 14: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험-춘천시 우두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49, 56-60.
- 12) 김진숙(2002). 살기좋은 우리동네 10: 놀이터에 새로운 문화가 꽃핀다-서울시 강북구 미아 3동-. 국토연구원. 국토 245, 138-143.
- 13) 김태선(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8: 버려진 하천, 중앙천을 시민 곁으로. 국토연구원. 국토 263, 124-129.
- 14) 도선봉, 신창훈(2009). 마을만들기 실행주체별 전략구축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4(2). 63-83.
- 15) 류승한(2007).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건축과 사회 9, 59-65.
- 16) 문귀남(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 7: 창원의 환경실천단과 함께 한 우리 동네 ‘하천살리기’. 국토연구원. 국토 242, 64-68.
- 17) 박종숙(2001a). 살기좋은 우리동네 1: 내집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지역으로-대구 삼덕동 골목공동체. 국토연구원. 국토 236, 104-108.
- 18) 박종숙(2001b). 살기좋은 우리동네 2: 부족한 문화시설,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국토연구원. 국토 237, 111-115.
- 19) 박종숙(2001c). 살기좋은 우리동네 3: 공간을 디자인하는 주민들-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양지공원-국토연구원. 국토 238, 89-93.
- 20) 박종숙(2001d). 살기좋은 우리동네 4: 상인들이 일군 문화의 거리-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국토연구원. 국토 239, 112-116.
- 21) 박종숙(2001e). 살기좋은 우리동네 5: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주민과의 약속’-서울시

- 광진구 노유거리. 국토연구원. 국토 239, 117-121.
- 22) 배승룡(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2: 주민 참여를 통한 희망의 장암마을 만들기 -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1단지 아파트. 국토연구원. 국토 257, 68-72.
- 23) 보건복지가족부(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24) 신중진, 송승현(2010).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 295-306.
- 25) 신중진, 신호진(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2), 109-120.
- 26) 신호진(2006). 기획특집: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방법과 사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합의형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의 수법. 도시와 빈곤 83, 34-53.
- 27) 심재봉(2006).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28) 유홍번(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7: 시민단체 · 행정 · 주민이 함께 한 안산마을만들기운동. 국토 262, 92-100.
- 29) 윤경화(2009).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만들기 - 2009, 2010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 2009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9-128.
- 30) 이명규(2006).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살기좋은 국토공간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방안-마을과 도시만들기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월간도시문제 41(451), 57- 68.
- 31) 이소영(2006). 마을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 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 공간과 사회 25, 99-130.
- 32) 이송지, 김혜장, 이경란, 광영선, 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 33) 장준호, 윤영모(2001).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 8, 191-204.
- 34) 정용옥(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3: ‘나’가 아닌 ‘우리’를 향한 첫걸음 - 사랑이 꽃피는 엘리베이터 모임이야기. 국토 258, 136-140.
- 35) 조성은(2010).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품앗이 사업 확대방안 - 공동육아 나눔터(육아정보나눔터) 운영을 중심으로. 2010 가족품앗이 사업 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36) 조연경, 김정민, 우신구(2009).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수법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참여 디자인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4), 205-216.
- 37)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38) 최봉익(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 9: 좋은 동네는 좋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 광주 YMCA 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 국토 244, 57-63.
- 39)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 40) 황희연(2007). 도시정비 참여주체와 주민 참여지원센터의 역할. 건축 51(9), 48-51.
- 41)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 42) 행정자치부(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 행정자치부.

san.or.kr

- 43)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
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4) 법제처. www.moleg.go.kr
- 45)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www.happyan-

- 투 고 일 : 2010년 8월 18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18일